

## IMF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박 한 규  
(朴漢圭)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  
경제주체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행정서비스가 가장 잘 되는 지역

### Ⅰ. 머리말

「경제는 곧 국력이다」라는 힘의 논리가 실감나는 한해가 될 것 같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 오던 우리 경제는 IMF라는 거대한 파도앞에서 고통과 시름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물가, 대량실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경제위기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해 나갈 때 오히려 굳건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충남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라는 도정의 목표를 내걸고 지방차원의

의 실효성있는 대응을 위해 자금, 기술, 판로, 입지 등의 분야에 지원을 전 행정력을 모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Ⅱ. 地域經濟 活性化 對應 戰略

####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흐름의 원활한 지원

우리 도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총수는 4,495개로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분야는 「자금, 기술, 판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97년 2,500억원 수준보다 크게 늘리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 자금규모, 이차보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연초에 이미 지원된 1,040억원 이외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구조조정자금 700

억원, 유관기관자금 등 총 3,000억원에 대하여 시기를 앞당겨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98년의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이 부담 하여야 할 이자 中 5.5%인 120억원을 道가 보전하여 주고, 98년에 회수되는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의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흑자업체 부도예방을 위하여 총 운영자금의 20%를 확보, 기업회생에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개발 촉진

우리도내의 기업형태는 대부분 영세·소규모·저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의 조정은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을 위하여 기 운영중인 산·학·연 공동기술컨소시엄을

10개 대학 130업체로 확대·운영하여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상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또한 천안, 아산지역에 「충남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단지, 벤처기업 육성단지, 애니메이션단지 등 7개 분야의 첨단단지를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신기술 보육 및 첨단기술개발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3조원의 생산유발과 효과와 약 3,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 3. 중소기업 창업의 효율적 지원

참신하고 경제성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화를 지원하는 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업체를 추가로 모집하여 대학교수의 「개별팀 닥터」, 졸업자에게 APT형 공장 알선 등 자립시까지 행·재정을 지원하고 또한 일반 창업희망자

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스쿨 개최(연 2회), 기업인 아카데미 개설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자 누구에게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4. 우리고장 우수상품 판로의 입체적 지원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기회로 삼아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3회, 해외무역 지원단 운영, 무역박람회 참가 2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기획전, 충남무역학교 개설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경쟁능력 배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5.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으로 물류체계 개선

최근 도내기업의 높은 물류비 부담이 상품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지방차원에서 해소하고자 우리 도내에 유통단지를 3개 거점 62만평을

먼저 1단계로 나누어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된 단지가 조성되면 해안과 내륙기능을 분담하고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계체널이 확보되고 또한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경쟁능력 향상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 6.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공급으로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우리도는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지역특성, 입지여건 등을 최대한 살려 값싸고, 쾌적한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저공해, 첨단·고부가업종 등 우량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도에서는 지역별 산업단지개발 장기계획(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등 83개 단지 7,941만㎡)을 마련하여 수요자 위주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별 유치유형 분류 등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서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등 한 곳에서 해결

해주는 「복합민원처리위원회」 운영, SOC사업 지원, 지방세 감면, 자금·기술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7. 기업에 대한 행정행태의 획기적 개선

도내 기업체가 산업생산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애로점 건의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유관기관·단체 등 공동으로 「기업인 애로법정」을 설치·운영하여 기업이 안고있는 각종 현안사항을 한 자리에 토의·해결해 줌으로써 가부에 대한 이의가 없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경제 국·과장이 100개기 업체를 현지방문 각종 애로사항 수렴, 기업지원시책에 반영·해소하는 「순회 상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기능별로 기업체를 수시 방문·점검하던 것을 매분기 1회로 한정토록 하는 「기업점검 합동화」를 운영하고, 또한 기업으로 타개 위원회 운영 강

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자금, 기술, 판로 등 전반에 걸쳐서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기업인 편에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8.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

IMF시대와 관련 대량 실업자 발생이 예견되고 또한 유가인상 등으로 모든 분야에 물가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지역단위 경제주체들의 경영안정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의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먼저,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노·사·정 대책회의를 정례화하여 노동계의 여과없는 의견을 수렴하여 해소토록 하고, 또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기 완공, 인력은행 설치·운영, 고용촉진훈련 등을 확대할 것이며, 지방물가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충청남도 물가관리팀 설치운영규정」을 모태로 분야별 팀제 운영, 서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품목의 D/B화, 농·수·축협 등과 공조하여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물가 수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단체를 활용한 비싼 업소 이용안하기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III. 맺 음

올해는 우리가 선택한 민선자치 제1기의 마무리와 제2기의 출발의 해이며, 또한 IMF금융지원으로 경제위기라는 도전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정부나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만에 빠져 과소비하는데 급급했고, 새로운 활로 모색 보다는 방관된 자세로 안주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제 이런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아 「꼭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결집할 때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도에서는 도정의 숏행정력을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 기업, 행정」이 역할

을 공동 분담하여,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경제활력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 경제주체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행정서비스가 가장 잘 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열린충남